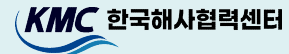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01

IMO 소식

2023년 'IMO 바다의 의인상'에 USCG 헬기 구조대원 Caleb Halle 선정



< 2023년 IMO 바다의 의인상에 Caleb Halle 선정, 출처: IMO >

- IMO는 미국해안경비대(USCG) 소속 헬기 구조대원 Caleb Halle를 '2023년 IMO 바다의 의인상 (IMO 2023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수상자로 선정함
 - ▶ Caleb Halle은 올해 1월 악천후로 표류 중이던 예인선 Legacy호의 선원 7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큰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었음
- 우수상에 해당하는 'Certificates of Commendation' 수상자로는 예선 SL Diamantina호 선원들 (호주), José Cardoso Lemos(브라질), 어선 제룽강유 05688호 선원들(중국) 및 John Walton

(미국)이 선정되었음. 우리나라가 후보로 추천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3016함 승선원 및 시내산호 박영환 선장은 장려상에 해당하는 'Letters of Commendation'을 수상하였음

- 한편, IMO 이사회는 현재는 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정부간기구(IGO)의 후보자 추천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 이외에 NGO와 IGO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서 A.1093(29)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IMO 기타 공지

[채용공고]

- IMO 사무국(행정국) 재정담당 Head(P.5) 채용 공고 (CL.4758, '23.8.1.)
 - ▶ 동 직책은 IMO 재무규정 및 관련 재무업무를 담당함. 지원자는 금융 서비스 관련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회계 관련 석사학위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필요함
 - ▶ 지원서 제출기한은 8.30.이며, IMO 사무국 직원 채용 지원자포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사무국 기타 공지]

- (사무국) 2023년 세계 해사의 날 병행행사 업데이트 사항 (CL.4754, '23.7.27.)
 - ▶ IMO는 제129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란의 '2023년 세계 해사의 날 병행행사'를 취소하며, 올해는 동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을 알림
- (사무국)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개정 (CL.4742, '23.7.27.)
 - ▶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 '23.7.)는 MEPC 81('24.3) 채택을 목표로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BWM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 '전자기록부의 작성 및 사용에 관한 지침' 개발에 따라 협약의 제A-4규칙(정의)에 전자기록부 정의 추가, 제B-2규칙(선박평형수관리기록)에 동 지침 인용 및 선장 서명방법 반영
- (사무국)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협약) 부속서 6장 개정 (CL.4744, '23.7.28.)
 - ▶ MEPC 80('23.7.)은 MEPC 81('24.3.) 채택을 목표로 연료소모량* 및 추가 데이터** 보고 관련 MARPOL 부속서 6장 개정안을 승인함.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 연료별 및 항해중이 아닌 경우 연료소모량 추가 보고
 - ** 적재 항해 운항거리(자발적 사항), 총 육상전력 공급량(kWh), 운송업무량(컨테이너선의 경우 tonne-mile, TEU-mile 모두 보고), 혁신기술 설치 관련 사항
- (사무국) MARPOL 협약 제1의정서 개정 (CL.4743, '23.8.8.)
 - ▶ MEPC 80('23.7.)은 MEPC 81('24.3.) 채택을 목표로 컨테이너 유실 관련 MARPOL 협약 제1의정서 개정안을 승인함
 - ▶ 동 의정서 제5조(보고 절차)에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한 경우 제 II조 (1)(b)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절차는 SOLAS협약 제5장 규정 31 및 32*를 따른다.'는 단락을 추가함
 - * 항해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실 컨테이너 보고를 의무화

- (사무국) 제3차 IMO-UNEP-노르웨이 혁신포럼* 개최 알림 (CL.4757, '23.8.2.)
 - ▶ 동 포럼은 9월 28일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MARPOL at 50'을 주제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GHG 기술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임
 - * 동 포럼은 2018년에 채택된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2021년부터 개최됨.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1,000명 이상이 온라인 및 대면으로 동 포럼에 참여함
- (사무국) 제2차 자율운항선박 회기간 작업반(MSC/ISWG/MASS 2) 개최 알림 (CL.4738, '23.8.3.)
 - ▶ MSC/ISWG/MASS 2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MASS 코드 초안의 추가 개발 및 자율운항선박 공동작업반 제출을 위한 공통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30차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 ICAO/IMO 합동작업반(ICAO/IMO JWG 30) 개최 알림 (CL.4752, '23.7.27.)
 - ▶ ICAO/IMO JWG 30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됨. 회의는 대면 (영어)으로만 진행됨
 - ▶ 동 회의는 IMO NCSR 10 및 ICAO 사무국이 승인한 의제(ICAO 활동 결과 브리핑, SAR 운영 원칙 및 메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참석자는 9월 22일까지 회람문서의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 등록해야 함
- (사무국) 제10차 선박 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 10) 개최 알림 (CL.4753, '23.8.2.)
 - ▶ SDC 10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유조선 외 선박에 대한 비상 예인장비 지침 개발, 2022 ESP 코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10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10) 개최 알림 (CL.4756, '23.8.8.)
 - ▶ HTW 10은 2024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증서 관련 불법행위, 인적요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11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11) 개최 알림 (CL.4746, '23.7.28.)
 - ▶ PPR 11은 2024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화학물질 안전 및 오염위험, IBC 코드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 북극 해역에서 선박의 중유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10차 선박 선박계통 및 설비 전문위원회(SSE 10) 개최 알림 (CL.4755, '23.8.7.)
 - ▶ SSE 10은 2024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구명정 환기구에 대한 요건, 자유낙하 구명정 진수 시스템 작동테스트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16차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ISWG-GHG 16) 개최 알림 (CL.4751, '23.7.31.)
 - ▶ ISWG-GHG 16은 2024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중장기 조치 개발 및 전과정평가(LCA) 프레임워크 추가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 개최 알림 (CL.4745, '23.7.28.)
 - ▶ MEPC 81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제80차 MEPC에서 승인된 BWM 협약 및 MARPOL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사무국) 제48차 간소화위원회(FAL 48) 개최 알림 (CL.4750, '23.7.28.)
 - ▶ FAL 48은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됨
 - ▶ 동 회의는 싱글윈도우 개념, FAL 협약 설명서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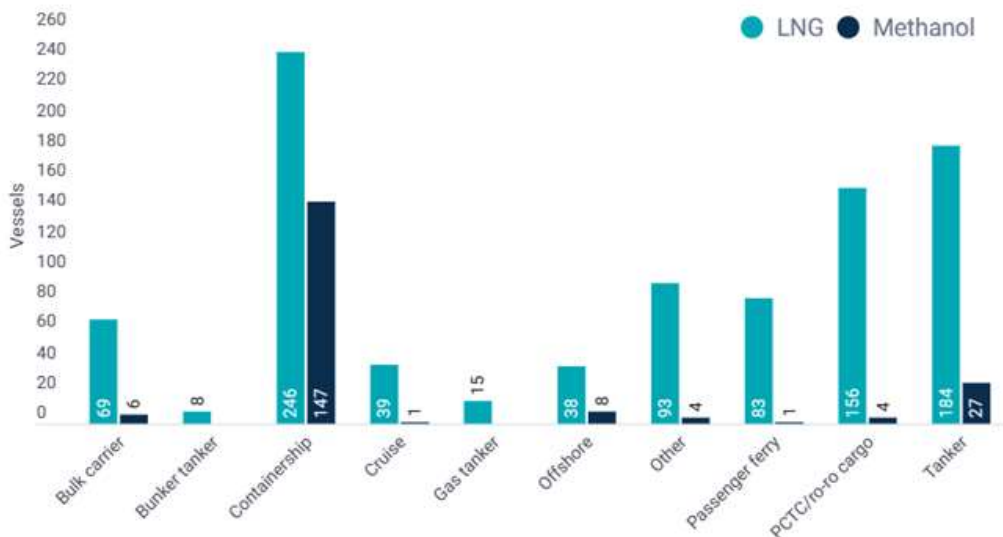
02

국제해사동향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발주량 지속 증가

(출처 : Lloyd's List, '23.08.03.)

- 노르웨이선급협회(DNV)의 월간 분석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지속적으로 메탄올 및 LNG 이중 연료 추진선박의 신조 또는 개조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은 6월에 29척, 7월에 48척이 신조 또는 개조 발주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운항 중이거나 발주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은 총 204척으로 늘어남
 - ▶ 6월에는 Maersk가 11척의 메탄올 엔진 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Seaspan과 Hapag-Lloyd가 15척 개조 계약을 체결함. 올해 7월 발주된 48척을 보면, 신조가 33척, 개조가 15척을 차지함
 - ▶ 한편,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 발주는 6월에는 26척이었으나, 7월에는 14척으로 감소함



〈 운항 중이거나, 산개조 발주된 대체연료 추진 선박의 선종별 현황, 출처: DNV AFI 〉

- Maersk는 지난 6월에 한국에서 첫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Laura Maersk호를 인도받아 울산항과 싱가포르항에서 OCI Global*이 공급한 바이오 메탄올을 급유하였음. 현재 Laura Maersk호는 명명식이 열릴 코펜하겐으로 항해하고 있음

- *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암모니아 생산기업으로, 글로벌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 메탄올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음
- ▶ 또한 Maersk는 내년부터 덴마크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인 European Energy로부터 재생가능한 수소 기반 그린 메탄올을 공급받을 예정임
- OCI Global은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사 X-Press Feeders와도 그린 메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 X-Press Feeders는 올해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선박 14척을 발주하였고 내년에 8척을 인도받을 예정임

파나마 운하, 이상기후로 인한 지속적 통행량 제한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23.8.4.)

- 파나마 운하청(ACP)은 엘니뇨(EI Nino) 등 이상고온현상 장기화로 인한 파나마 운하 수위 저하에 대응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일일 통과 선박 척수를 파나마스* 갑문 22척, 네오파나마스** 갑문 10척 등 총 32척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함

* 기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폭 32m 이내의 선박으로 4,500TEU급 컨테이너선을 지칭함

** 2016년 6월 폭 49m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선박을 뜻하며 12,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지칭함

- ▶ 파나마 운하청은 해당 지역의 우기가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감소하고 파나마 운하 중심에 위치한 가툰호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함

- 파나마 운하청은 선박 척수 제한에 앞서 선박 흘수 제한조치를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로 올해 수입이 2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 네오파나마스 갑문 수심은 연초 15.24m이었으나, 3월 1일 15.09m, 4월 7일 14.63m, 4월 27일 14.33m, 5월 30일 13.41m로 계속 하향 조정되었음. 한편, 파나마스 갑문 수심은 기존 12.04m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부 선사에서는 화물 적재량 조정으로 본선에 예정된 화물량을 모두 적재하지 못해 환적항에서 대기하는 등 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함

- Vasquez 파나마 운하청장은 “다른 운하가 수위 유지에 해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파나마 운하는 담수를 사용하는 것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라며, “운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협을 가로질러 화물을 운송하는 등 다양한 물류통로를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 실제로 올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대형컨테이너선 Ever Max호와 같은 경우에는 운항 제한으로 인하여 총적재량 13,345TEU 중 1,400TEU를 기차로 환적한 사례가 있었으며, 파나마 운하청은 철도운송을 통해 4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함

ABS, 상선의 원자력 추진시스템 설계 모델링 공개

(출처 : World nuclear news, '23. 7. 25.)

- 미국선급협회(ABS)는 지난 7월 24일 미국의 선박·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Herbert Engineering Corp.*와 연구 중인 원자력 선박 추진시스템 적용의 1,400 TEU급 컨테이너 선박과 157,000 DWT급 수에즈막스(Suezmax) 유조선의 설계 모델링을 공개함

* 1963년 Robert N. Herbert에 의해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선박, 해양 운송시스템 및 해양구조물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함. 선박의 안전성 증진, 에너지효율 최적화 및 다양한 선박 기가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수행 중



〈원자력 선박 추진시스템 배치도 이미지, 출처: 미국선급협회(ABS)〉

- 컨테이너선에는 25년 동안 연료공급이 불필요한 납 냉각 방식의 30MW급 고속원자로 2기가 탑재되며, 기존 선박과 비교했을 때 추진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이 감소하여 더 많은 화물 적재가 가능함. 또한, 유조선에는 5MW급 마이크로 원자로 4기를 추가 설치해 선속을 높일 수 있음
 -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선박은 탄소중립 측면에서 대두되는 차세대 선박 추진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다만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기술·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ABS의 CEO Christopher J. Wiernicki는 이 연구를 통해 선박에서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효율 최적화 측면에서 선박 추진용 원자력의 잠재성을 확인했음을 언급하며, 원자력 추진선박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업계로부터 다각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ABS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힘